

추모 예배 순서

집례_담당 교역자 또는 가장

예배시작 집례자

오늘은 고 ○○○님께서 소천하신 날입니다. 고인은 천국에 가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고인의 모습이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묵도 드리심으로 추모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다같이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찬 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통일찬송가 424장) 다같이

- 1 주의 곁에 있을 때 맘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 2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 3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 후렴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봉독 시편 37편 23-24절 (구약 960페이지) 다같이

- 23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 24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심이로다

말 씬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집례자

우리는 오늘 먼저 천국에 가신 고인의 신앙을 추모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모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추모예배를 통해 고인이 걸었던 신앙의 여정을 추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시37:23). 하나님에 의해 사람의 인생 여정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모든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시37:24).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이 넘어지는 존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라 할지라도 환난이나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며 신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거룩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뻗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엎드러진다는 말은 ‘내동맹이쳐진 상태, 버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연합함이 있기에 실수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절망의 바다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손으로 건져 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시37:28).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속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37편 3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시37:34a).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뜻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고백에 집중하십시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시 37:31).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코 실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모든 자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 도 집례자
 주기도문 다같이